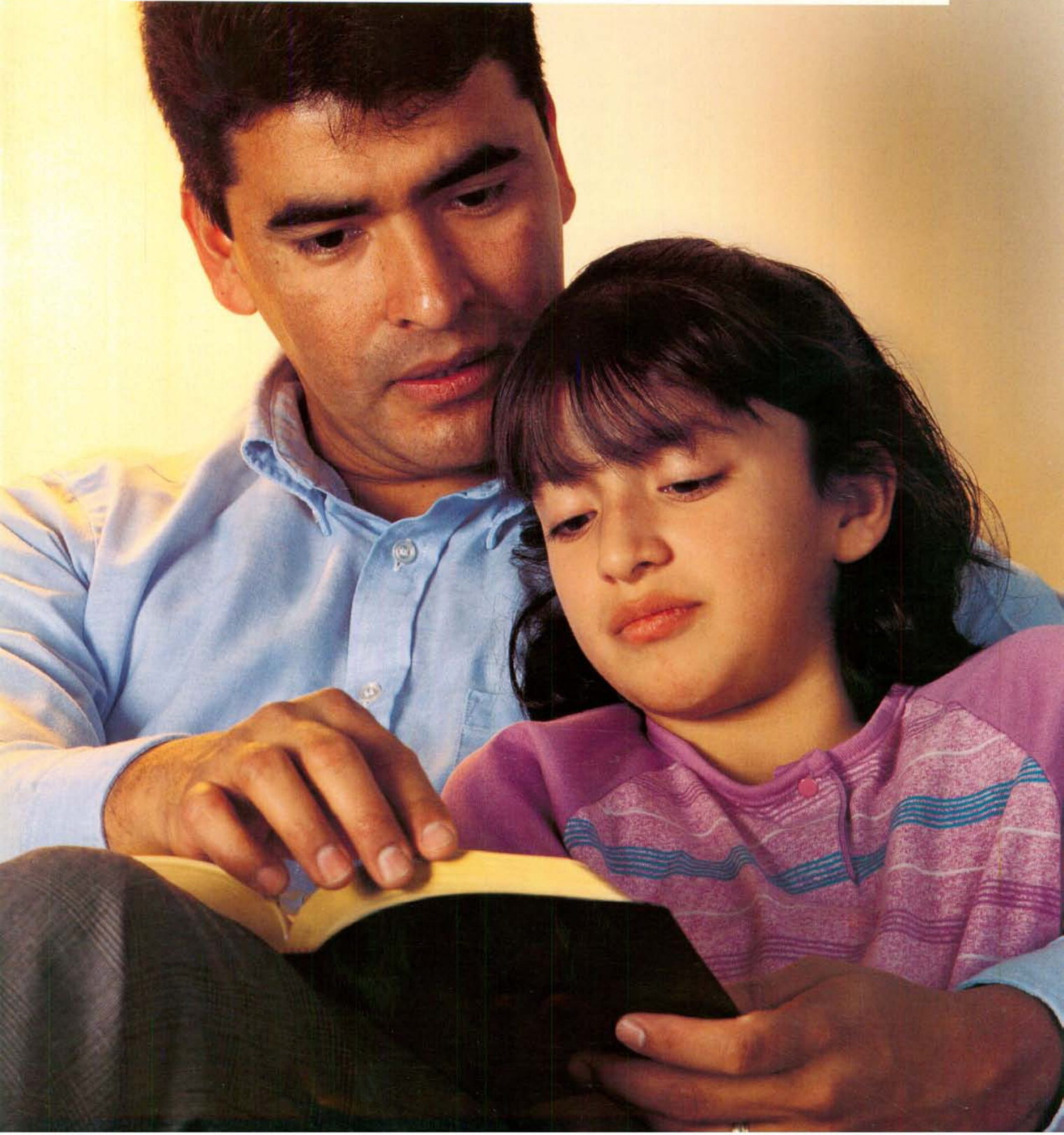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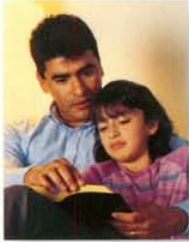


# 리아호나



# 리아호나



표지  
사진 삽화(앞): 크레이그 다이몬드  
사진 삽화(뒤): 제리 간스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줄리 디 에이워캠프, "안젤라 밀러, 아이오와 주 카운실블러프스", 2쪽 참조

2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4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금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키움
- 28 말일성도의 소리: "간증과 증거"  
더 높은 시야 휴고 이바레스  
저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라이디 제보 바히  
반드시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 켈리 에이 하워드
- 34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
- 36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되어 로널드 엘 나이트
- 48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활용하기

## 청소년란

- 8 예언의 성취 후앙 카를로스 그메즈 플레즈
- 10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 자넷 토마스
- 22 질의 응답: 왜 나는 십일조를 내는 일에 관해 걱정해야 하는가?
- 26 말씀에 말씀: 구세주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 46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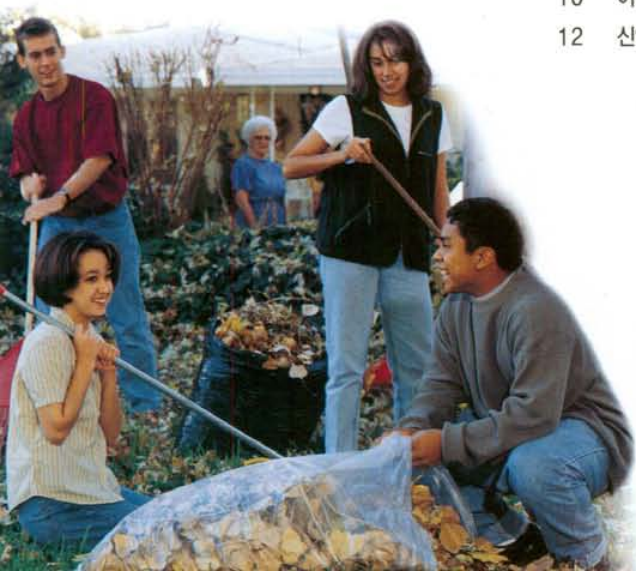
## 친구들(별책 부록)

- 2 친구 사귀기: 안젤라 밀러, 아이오와 주 카운실블러프스 줄리 디 에이워캠프
- 5 심심풀이: 손수레에 짐 실기
- 6 함께 나누는 시간: 예언자를 따를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다이앤 에스 니콜스
- 8 예언자의 권고: 여섯 가지 "우"
- 10 이야기: 가정의 밤 보물 찾기 제니퍼 젠슨
- 12 신약 성서 이야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심; 죽었던 아이로의 딸이 살아남

친구들, 5쪽 참조



10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앨런 케이 헨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엘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롭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말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셰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제이 커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킷 벤 캠펜

선일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리 에이 코치, 테니즈 키

비, 엘리 프랭, 로널드 에프 스파크스, 클라우디아 이 워너

디자이너/교정 인쇄: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423호, 제 38권, 제 6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1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베트남어, 폴리아리아어, 사모아어, 체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une 2001 No.6.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회원들이 열쇠입니다”**

2000년 9월호 리아호나(영문 판)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쓰신 “회원들이 열쇠입니다”라는 훌륭한 기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와드가 필요로 하는 글이었고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고 새로운 개종자와 우정 증진을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저희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원 선교 사업이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루벤 엘 안젤레스

필리핀 스테이크 레가즈피 스테이크  
레가즈피 와드

**힘을 준 대관장단 메시지**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지 3년이 되었고 리아호나를 구독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잡지를 구독하고 그 안에서 찾게 되는 영적인 향연을 즐기기를 전적으로 권합니다. 매일의 삶을 헤쳐나가는데 있어 그것은 제게 커다란 간증이 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와 다른 기사들은 제가 가정 복음 교육을 하고 효과적인 말씀을 준비하는 데 지침이 됩니다.

에두아르도 에 오르티즈 피칼루아  
콜롬비아 신셀레호 지방부

엘 보스께 지부



**커다란 기쁨**

저는 콜롬비아 볼리바르 카르타헤나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게 되었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찰 학교의 전문 교육을 마치기 위해 보고타로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육개월째 살고 있는데 주말에 비번일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몇 번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주신 리아호나 한 권은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회원은 아니시지만 교회가 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델 필라르 로자스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로스 알페즈 지방부  
엘 소코로 지부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도움**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가족 중에서 유일한 회원입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제가 배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배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항상 리아호나를 가방에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그 책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합니다.

기을리아나 아구에로 빠레자

페루 아레키파 자마콜라 스테이크  
자마콜라 와드

#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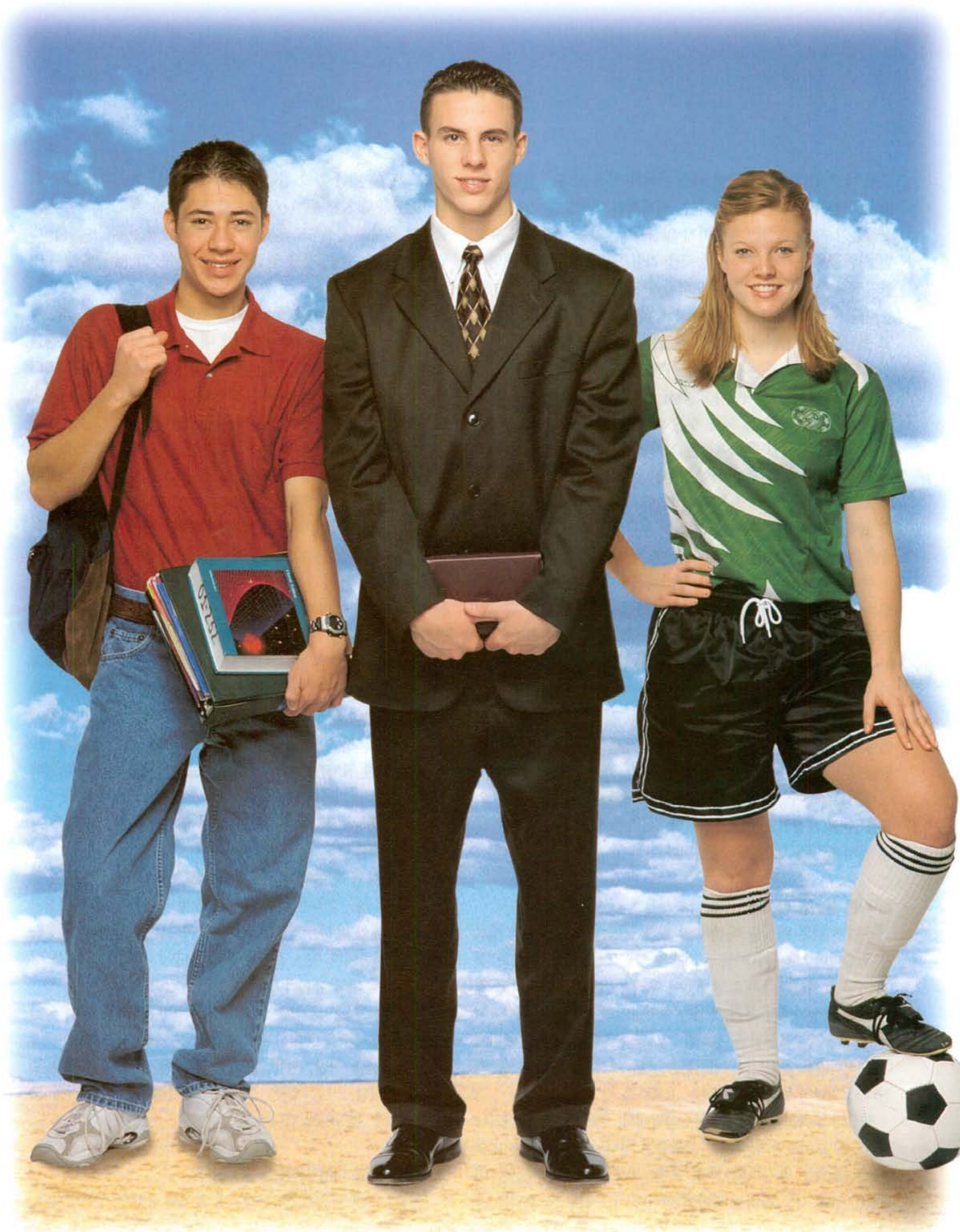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재능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다면 더욱 행복해 질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에 나아오도록 예비되었던 특별히 선택된 영들이신 청소년 여러분들을 칭송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삶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고투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고 굳건한 마음 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취하거나 탁월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분야가 남들과는 좀 색다르기를 희망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미소나 성품,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복돋아 주는 능력일 것입니다. 또는 운동 선수, 학자, 컴퓨터 전문가, 음악가, 건축가, 예술가, 혹은 기타 수백 가지 분야 중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재능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적인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취들은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명한 사회 사업가인 프레드 릴리 박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는 운동 선수로서 인식하는 많은 운동 선수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산산



조각 나고 맙니다.”<sup>1</sup> 그들의 자기 가치가 성격 보다는 신체적 기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위대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불안정하여 마약이나 술, 부도덕함에 굴복하고 파멸된 삶을 맞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행복해 하기 보다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내면적인 자아 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전적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언제나 더 행복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재능들을 최대한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들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아와 실제의 자아는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서로 다른 자아는 일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영의 자녀였던 태초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은 대체로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운 원리들을 따르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나쁜 행위를 바꾼다.

우리는 나쁜 행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마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sup>2</sup>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좋아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부모님과 청소년 지도자들에게서 올바른 행위에 대해 배워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경전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남자답거나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여러분과는 맞지 않는 역할 모델, 외모 유형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 사로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17세 된 한 소녀는 자

신의 외모에 대한 강박 관념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다가 결국 식욕 이상 증세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친은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도록 딸에게 강력히 권했습니다. 이러한 대립 끝에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생동안 저는 늘 다른 누군가를 위한 무언가를 했습니다. 성적, 예절, 상장들—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먹는 일, 몸무게를 빼는 일 만큼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 자신과 제 선택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그것마저 뺏어가려 하고 있었습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저는 제 자신이 똥똥하다고 느끼면서 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을 지새운 후 저는 제가 미워하는 것이 아빠가 아니라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미워했던 거예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병이 제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제가 제 삶을 지배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루 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사실, 회복까지의 길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이상적인 몸무게를 되찾았고, 더 이상 몸무게 재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요. 또 더 이상 패션 잡지들도 탐독하지 않아요—제가 ‘유행’에 뒤떨어질지는 몰라도 기분은 좋습니다!”<sup>3</sup>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게 되면 행복과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나쁜 행위를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서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는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위대한 은사는 의로운 생활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를 통해 옵니다. 팔리 피 프렛은 성신의 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지적인 능력들을 되살아나게 하며 모든 자연적인 열정과 애정을 증대시키고 확장시키며 순화시킵니다. … [그것은 유덕함과 친절, 선행, 다정함, 온화함, 사랑의 마음이 우리나라에 합니다. … [그것은 건강하고 이지적인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들을 활기있게 합니다.”<sup>4</sup>

## 2.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용서는 나쁜 행위를 중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변화를 해 나가려면, 우리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그릇된 길을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나쁜 행위들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경은 우리가 악에서 선으로 완전히 돌아 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예수님에 관한 훌륭한 말씀을 전하자, 모든 니파이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영은 …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 …

“우리의 왕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이같이 크게 기뻐하게 하였으며”<sup>5</sup>

우리는 기쁨과 평온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 알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 3. 좋은 선택들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는다.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어떤 점에서 이러한 선택들은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명예나 부가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 대해 마음 편

하게 느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올림픽 게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의 다양한 경기마다 일정한 경기 규칙 및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와 수영 선수들은 자신의 레인을 벗어나서는 안되고, 투포환 선수들은 경기장에 표시된 원 밖을 나가서는 안되며, 레슬링 선수들은 매트를 벗어 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때 선수들은 실격됩니다. 덧붙여서, 경기력을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도 금지입니다.

콜로라도 주 덴버 출신의 한 젊은이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금지된 스테로이드계 약품 사용으로 인해 실격되는 바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 불운한 경쟁자의 금메달 박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참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합니다. …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저는 제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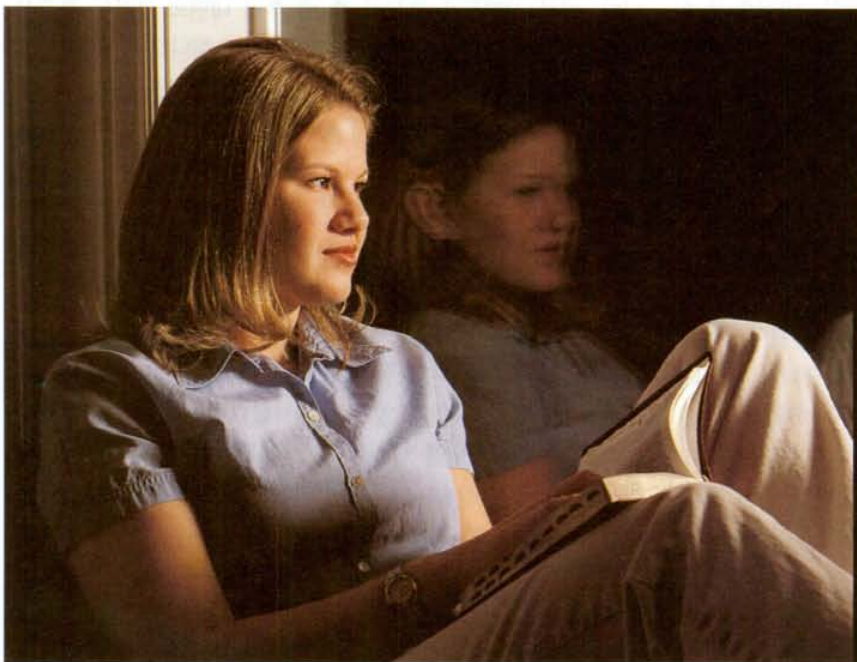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의 경위를 통해 아주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승리의 환희를 맛보기 전에 패배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훨씬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sup>6</sup>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자신감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경전을 읽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들을 다스리겠다는 결심에서 생겨납니다

### 4. 봉사한다.

진정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친절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선다면,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를 원한다면, 친절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친절함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게 합니다.

체내에 분비합니다. 그러한 분비물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엔돌핀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엔돌핀은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오래 전부터 기정 사실

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 대형 병원의 간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묘약이다.” 웃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좋습니다.

미소는 우리 용모를 빛나게 하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곧 학교나, 교회나, 직장 동료들에게 우정 어린 친절을 보이는 것은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겠]다”<sup>10</sup> 침례시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기 원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 드리는 훌륭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친절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수줍어 하거나 외로워 하고 있으며 진정한 밀이나 미소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돋아 줄 때 우리 내면의 자이는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sup>11</sup> 왕과 나에 나오는 애나와 같이 저도 “행복한 노래”를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는 것이(특히 혼자 있을 때!) 제 기분을 가볍게 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5. 행복을 선택한다.

오래 전에 제 부친은 오랜 친구인 브링허스트 박사님과 숲속으로 산책 갔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산책하는 도중에 박사가 너무도 소리 높여 노래 부르는 바람에 모든 야생 동물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친은 박사가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도 좋아서 동물이며 새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소리내어 웃거나 미소 짓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운동을 할 때 우리의 기분은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를 잊게 되거나 보다 나은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 때, 행복 호르몬이 자극되며 우리는 참된 자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천연의 “행복” 호르몬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이러한 호르몬들은 강력한 화학 물질들을 우리의

체내에 분비합니다. 그러한 분비물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엔돌핀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엔돌핀은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오래 전부터 기정 사실

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 대형 병원의 간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묘약이다.” 웃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좋습니다.

미소는 우리 용모를 빛나게 하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곧 학교나, 교회나, 직장 동료들에게 우정 어린 친절을 보이는 것은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겠]다”<sup>10</sup> 침례시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기 원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 드리는 훌륭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친절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수줍어 하거나 외로워 하고 있으며 진정한 밀이나 미소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돋아 줄 때 우리 내면의 자이는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sup>11</sup> 왕과 나에 나오는 애나와 같이 저도 “행복한 노래”를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는 것이(특히 혼자 있을 때!) 제 기분을 가볍게 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천연의 “행복” 호르몬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이러한 호르몬들은 강력한 화학 물질들을 우리의



# 동상 의인 10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년 전에 행해졌던 연구가 생각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으로는 부모, 신권 고문, 청년 고문, 스카우트 지도자, 동료 그룹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 전면에 나타난 지극히 중요한 한 가닥의 황금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주님께 우리의 행위를 낱알이 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 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주께서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시매, 아무도 그를 속이지 못하리로다"<sup>12</sup>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인 힘과 결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세주께 우리 행위와 청지기 직분을 개인적으로 보고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그에 부응하는 것은 심대한 영적인 보호를 가져옵니다.

랠프 왈도 에머슨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을 가능할 척도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라네,  
명석한 사람들의 존경과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네,  
정직한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고  
거짓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 내는 것,  
아름다움을 알아 보고  
타인에게서 가장 좋은 점들을 찾는 것,  
건강한 아이나, 작은 정원  
혹은 더 나아진 사회 환경을 남겨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그대의 존재로 인해  
한 생명이라도 보다 편히 숨쉬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네,  
바로 이것이 성공이라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sup>13</sup>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린 단순한 제안들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 자신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적이고 용감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과 딸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여정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

## 주

1. 사라 제인 위버의 "건강한 자아 개발", *처치 뉴스*, 1996년 2월 10일자, 2쪽 인용.
2. 앨머서 41:10.
3. 가브리엘라 토트, "개비, 넌 너무 말랐어", *침대를 위한 닭고기 스프, 인생과 사랑과 배움에 대한 101가지 이야기*,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헨슨, 김벌리 커버지 편(1997), 234~235쪽.
4. *신학 과학의 열쇠*, 9판(1965), 101쪽.
5. 모사이사서 5:2, 4.
6. 브랜든 슬레이, "미국 레슬링 선수, 늦게 온 금메달의 기쁨", *데저렛 뉴스*, 2000년 10월 24일자.
7. 마태복음 22:39.
8. *해롤드 비리의 가르침*,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편집(1996), 477쪽에서 인용.
9. "확고한 나팔 소리: 리 대관장의 어록 인용", *엔사인*, 1974년 2월호, 78쪽.
10. 모사이사서 18:8.
11. 누가복음 6:31 참조.
12. 니파이서서 9:41.
13. *History of the Church*, 6:303.

## 가정 복음 교사들을 위한 제안

1.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아와 실제의 자아는 일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은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입니다.
  - 나쁜 행위를 바꾼다. 나쁘다고 알고 있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좋아하기란 어렵습니다.
  -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 이러한 용서는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행위들을 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 좋은 선택들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는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게 됩니다.
  - 봉사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큰 만족감이 옵니다.
  - 행복을 선택한다. 소리내어 웃거나 미소 짓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3.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 예언의 성취

후앙 카를로스 그메즈 플레즈



**열** 다섯 살 때 나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교적 관습 몇 가지가 성경에서 읽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내 인생, 곧 내 청소년 시절을 허비시키는 활동들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지는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주님의 참된 교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어느 일요일에 어머니의 직장 동료 한 분이 우리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임에 초대했다. 한편으로 긴장도 했지만, 건물로 들어갔을 때 느낌이 달라졌다. 분위기는 경건하였으며, 나는 그곳에서 고요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날 예배를 보는 동안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 주부터 어머니와 함께 두 명의 자매 선교사에게서 토론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침례를 받았다. 비록 침례를 받기 전에 교회의 모든 교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또 영의 증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앙을 행사했다.

나에게 손길을 내밀고, 우정을 베풀며, 또 어려웠던 시기에 돌보아준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나는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계속 생활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안다. 청소년 시절에 이 진리와 그토록 선한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 지 모르겠다. 그들의 모범은 나를 강화시켜 주었으며, 내 앞에 놓여있었던 어려웠던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열 아홉 살이 되었을 때 나는 5학기째 시스템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간다면, 귀환

한 뒤에 학비를 보조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어려운 결정의 시기에, 스테이크 선교부장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성구 하나를 들려 주셨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태복음 10:38)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구절이 하나 더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태복음 19:29)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념하여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선교 사업은 단지 내 인생의 가장 멋진 경험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었다. 어려운 일들이 항상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는 방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파이 일서 3:7 참조)

나는 콜롬비아 칼리 선교부에서 봉사하였다. 내 조국, 내 조상과 내 친척의 땅에서 가르쳤던 것은 선교 사업을 통해 받은 가장 훌륭한 축복 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작은 인생을 통해 일어난 예언의 성취였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의 나라에 각각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지혜로써 그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뜻을 따라 지혜로 다스리심을 우리가 아느니라.”(앨마서 29:8) 주님의 지혜로우신 권고를 듣고 그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

후앙 카를로스 그메즈 플레즈는 콜롬비아 보고타 수바 스테이크 라 캄피아 워드 회원이다.





“일찌기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버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88:83)

# 아침에 가장 먼저 할 일



자넷 토마스

**아**일랜드 더블린 스테이크 피닉스 파크 와드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조금 염려스러웠다. 스테이크장과 감독이 그들과 만나 새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일랜드 전체에서 최초로 매일, 그것도 매일 새벽에 세미나리 수업을 하게 될 것인가?

15세의 엘레인 오파렐은 자신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매일 보게 된다면 서로를 귀찮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15세의 파멜라 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분들이 그 새벽에 저를 침대에서 나오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17세의 패리스 부카차와 동갑의 루이스 바이언은 아주 멀리 살고 있었다. 따라서 새벽반에 참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걱정만 한 것은 아니었다. 15세의 제나 겔러거는 그 제안에 조금은 흥분이 되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새벽반 세미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을 항상 꿈꾸어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마침내 일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패리스는 아침에 가족차를 사용하여 루이스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 파멜라는 오페 데릭과 함께 제 시간에 떠날 수 있도록 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기로 동의하였다. 엘레인도 마음을 바꾸어 매일 아침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제나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그저 행

복하기만 했다. 선교부장의 자녀들인 18세의 브레트 크로더와 그의 동생인 16세의 브랜트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매일 만나는데 일에 자못 흥분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들의 교사 로즈마리 리치몬드 자매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 답을 알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종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 비록 말일성도 학생들이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학교의 필수 종교 과목에서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경전 공부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할 때면, 저를 가리키면서 ‘셋, 답을 말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손가락을 그들의 입술에 갖대곤 합니다. 그들은 제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레인도 종교 수업에 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성약과 같은 말의 뜻을 물으실 때 제가 대답을 하곤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제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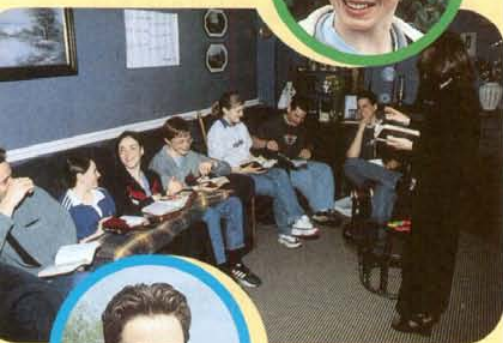
17세의 데릭 페이지는 학교와 세미나리 모두에서 출중하다. 그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직전에 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세미나리에서 축복사의 축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당시 우리 스테이크에는 축복사가 없었

으나, 삼일 후에 새로운 축복사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때 저는 교회가 참되다고 생각했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하게 행동하고 또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문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새벽반 세미나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학교에서조차도, 지금은 배운 내용을 매우 빨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데릭은 아일랜드에서 성구 익히기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암기한 최초의 세미나리 학생이 되었다. 다음 도전으로 그는 요셉 스미스 이사에 있는 첫번째 시험의 기사를 암기하였다.

는 사물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데릭 페이지: “우리는 세미나리에서 축복사의 축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당시 우리 스테이크에는 축복사가 없었으나, 삼일 후에 새로운 축복사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느꼈습니다.”



패리스 부카차: “저는 기도와 십일조에 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으로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관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미나리에서 그 답을 찾곤 합니다.”

### 개심을 하게 되다

브랜트 크로더는 그와 그의 가족이 아일랜드에 도착하고 나서 몇 달 후에 겪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 거의 매일 밤마다 기도하였지만, 어느 날 밤 진지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는 제가 이 곳 아일랜드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구세주와 더욱 더 가까이 있습니다.”

브랜트는 주님께서 그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몇 가지 일에 대해 설명한다.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또 매일 밤 기도하고,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리 수업은 종종 패리스가 응답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저는 기도와 십일조에 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으로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관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미나리에서 그 답을 찾곤 합니다. 저

### 토요일 저녁에 즐거운 모임을 갖다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은 주중 아침에 모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인다.

그 일은 루이스의 어머니가 브레트에게 루이스의 친구들이 루이스에게 토요일마다 함께 술집에 가자고 하는데 루이스가 결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반 전체가 함께 모여서 밖에 나가 즐거운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브레트는 말한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 첫째 주에 그들은 극장에 갔으나, 계속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활동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비디오를 보거나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엘레인 이렇게 설명한다. “전엔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젠 이야기를 나눌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마다 할 일을 갖게 됨으로써 루이스는 교회에서 굳건하게 남겠다는 결심이 강화되었다. “그것이 제가 매주 주말에 시간제로 일하는 직장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기쁨 그들과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결국 정신



파멜라 페이건:

“[세미나리 반원들과 함께 하는] 토요일 저녁은 재미있습니다. 저의 다른 친구들의 표준은 저의 표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세미나리 활동에 갈 때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적으로 피곤을 느끼게 돼요. 저에 대해 설명하는 일에 지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세미나리 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토요일 저녁은 재미있습니다.”라고 파멜라는 말한다. “다른 친구들의 표준은 저의 표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세미나리 활동에 갈 때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즐겁게 지냅니다.”

데릭은 이렇게 덧붙인다. “새벽반 세미나리와 토요일 저녁 활동으로 우리는 더욱더 가까게 되었으며 더욱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제 동생인 파멜라와도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술에 취하고 또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 굳은 결심을 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올해의 세미나리는 이

학생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교사인 로즈마리 리치몬드 자매는 그들이 교회사에서 초기 예언자들과 회원들의 신앙에 관하여 배우게 해 주었다. 그녀의 남편 브렌던은 매우 희귀하고 위험한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다. 비록 남편의 간호와 건강 문제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녀는 수업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세미나리 반원들이 매일 새벽 세미나리 수업에 올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다.

“여기 회원들은 매우 충실한데, 특별히 로즈마리 자매님은 그 분이 겪어온 그 모든 시련들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루이스는 말한다. “그 일은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미나리에서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개척자들에 관해 읽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위대한 분입니다. 저는 그 분을 사랑합니다. 그 분이 지녔던 간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 다. 그 시절로 돌아가 생활하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개척자들은 단지

그들이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복미 대륙의 반을 가로질러 걸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루이스는 그런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간다. 작은 무리의 용감한 세미나리 친구들이 있기에 그녀는 홀로 일어설 필요가 없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

# 계속하여





# 선행하려는 마음



스펜서 제이 콘디  
철십인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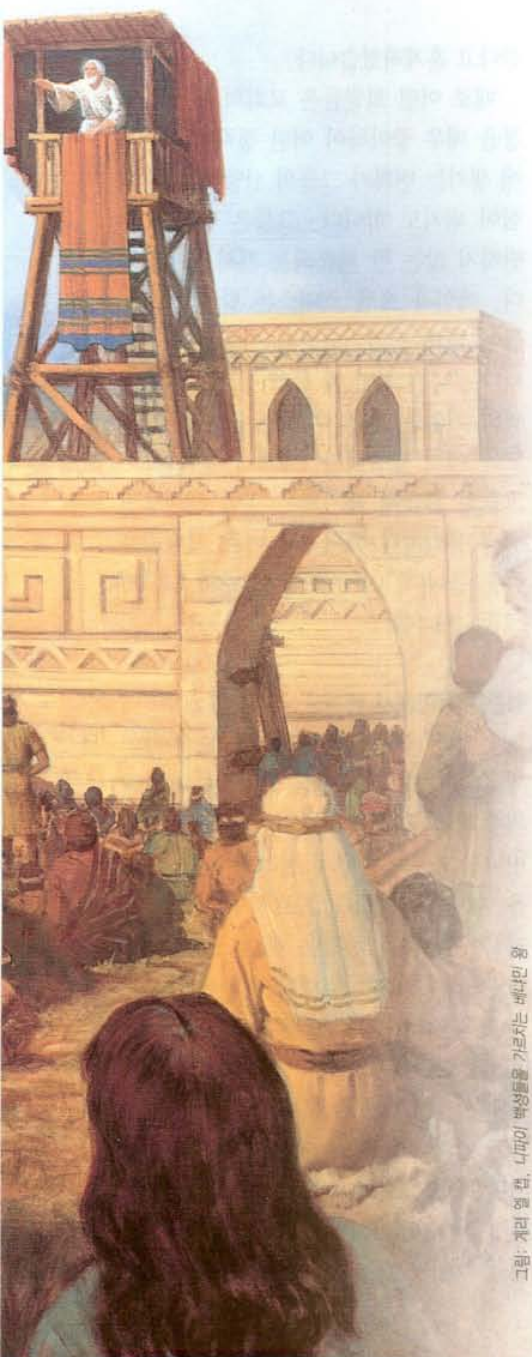


그림: 제리 앨 톰, 니파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베냐민 왕

참된 개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증거는 다시는 악을 좇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약** 2000년 전 큰 무리의 성도들이 제이라헤물라 땅에 있는 성전 주위에 모여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를 들었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여러 차례 상기시켰습니다.(모사이야서 3:2; 4:1; 4:11; 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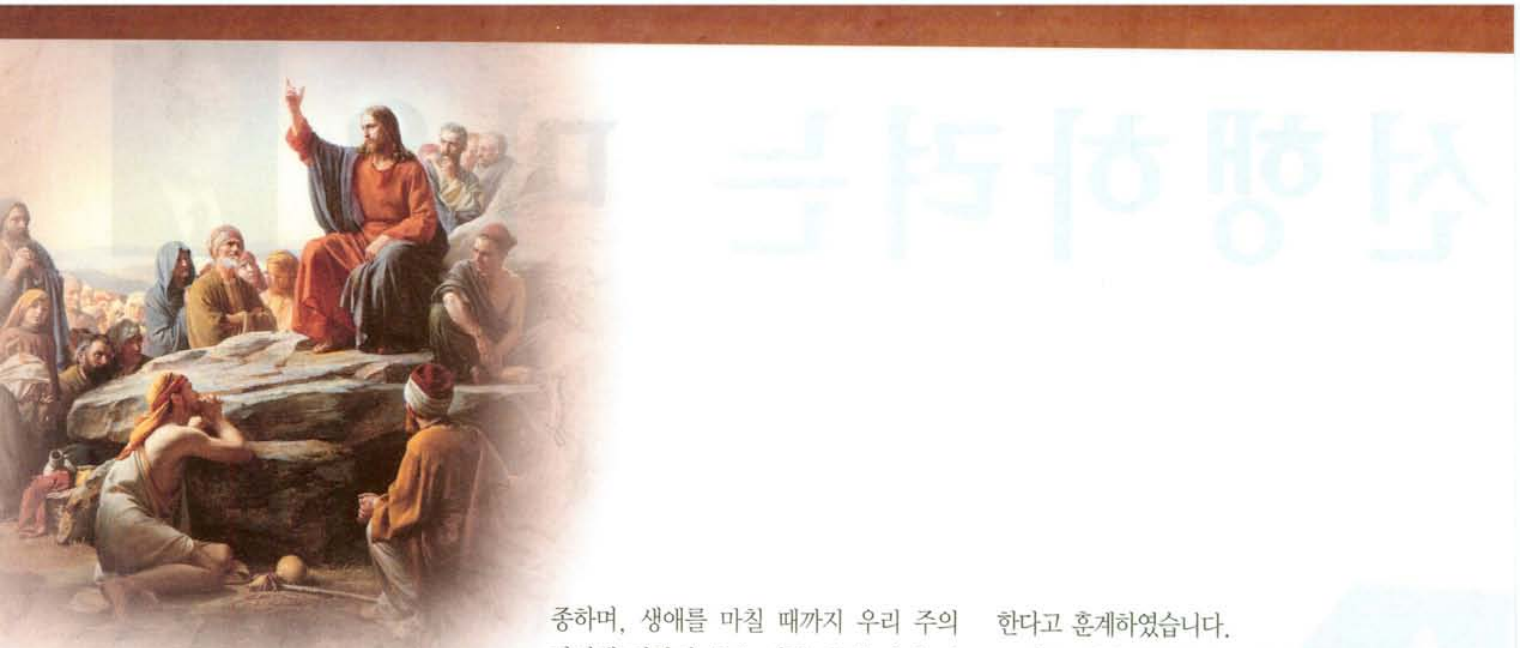
베냐민 왕의 영감에 찬 설교를 들은 많은 수의 회중은 모두 한 소리로, “오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모사이야서 4:2~3) 졌습니다. 엘마가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

베냐민 왕이 영감에 찬 말씀을 마쳤을 때 백성들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믿었으며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니라.”(엘마서 41:10)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제이라헤물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용서 받았다는 더 확실한 두 가지의 증거인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모사이야서 4:3, 12 참조) 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다른 특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모사이야서 4:13) 하려 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모사이야서 4:14) 않게 하려 했습니다. 죄 사유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특징으로 궁핍한 자를 돕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모사이야서 4:21)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이 영감에 찬 말씀을 마쳤을 때 백성들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믿었으며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모사이야서 5:2)려 하였습니다. 참된 개심과 죄 사유함의 모든 증거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 성향의 변화

**진복 팔단은 온유, 자비, 순수한 마음 및 신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개발하도록 격려해줍니다.**

## 모세의 율법과 더 높은 율법

선악 간에 그것을 행하려는 의도를 자세히 살펴 보면 모세의 율법과 구세주께서 산상수훈에서 전해주시는 더 높은 율법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살인, 간음, 신성모독 등과 같은 행위 자체를 금하는 반면, 더 높은 율법에서는 이러한 사악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성향, 즉 분노, 음란한 생각 및 일체의 욕설 등을 금합니다. (마태복음 5:21~37; 니파이삼서 12:21~37 참조) 진복 팔단은 온유, 자비, 순수한 마음 및 신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개발하도록 격려해줍니다. (마태복음 5:3~12; 니파이삼서 12:3~12 참조) 사람이 계속하여 선행을 하려 할 때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테살로니가전서 5:22)고 “죄를 미워”(앨마서 13:12)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죄가 될 일을 다 말할 수는 없나니 … 그러나 이 만큼을 전할 수 있나니,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언동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순

종하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 주의 강림에 관하여 들은 바를 굳게 믿지 아니할진대 기필코 너희가 멸망하리도다.” 그런 다음 그는 성도들에게 “이를 기억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모사이야서 4:29~30; 또한 앨마서 12:13 참조)고 권고하였습니다.

## 성향을 키움

많은 사람들의 성향은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내면화시킨 문화적인 전통을 반영합니다.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적인 관습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만연되어 있는 음주, 천박한 복장과 행동, 결혼 전의 동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교리와 성약 93:39)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특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대중의 기호가 아니라 계시된 진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하나님의 적 이요”라고 경고하였으며,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모사이야서 3:19)김으로써 육으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즉 거룩하지 못한 관습을 버리고 그들의 육적인 성향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훈계하였습니다.

때로 어떤 회원들은 교회의 특정한 전통을 매우 좋아하여 어떤 정책이나 절차에 생기는 변화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계시를 믿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당시의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 그들의 관습에 대치되는 것이 들어오면 즉시 유리처럼 깨어지고 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예언지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14쪽)

## 성향은 욕망에서 생겨남

선이나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씨앗은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에 의해 뿌려집니다. 앨마는 그릇된 길로 빛나간 조램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그들이]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 [그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앨마서 32:27)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욕망도 점점 지속되다 보면 습관적인 생각이나 행동의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

(1876~1972)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형성하기 쉬운 것만큼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도 쉽습니다.” (The way to Perfection, 10th Edition [1953], 150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정직한 자라면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은 외적인 강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광의 동반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억제에서 오는 것이다.”(예수 그리스도, 138쪽)

엘마는 아들 코리엔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욕망과 의도가 빚어내는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날카롭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마다 행한 대로 거두게 되리라. 만일 누가 악을 행하기 원하고 그의 생애에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법대로 악이 저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엘마서 42:27~28)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은행을 터는 자와 유사한 성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피해의 대상과 방법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라기 3:8)

이웃에게 부당한 화를 내는 사람은 다

른 사람을 짓밟는 독재자와 같은 성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각종 외설물을 경험하는 인터넷, TV 중독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부도덕한 죄를 범하는 사람과 똑같은 성향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일이 일어나는 순차적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정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4~15) 우리의 성향은 대개 행동으로

**고백에는 반드시 악을 좇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뒤따라야 하며 그것은 죄를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야고보서 2:18)

#### 성향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림

어떤 예비 선교사들이나 성전에서 인봉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부들은 최근에 있었던 범법 때문에 선교 사업이나 성전 결혼의 축복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종종 낙담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나타내보이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지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주님께서하신 다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해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고백은 용서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조건이지만 고백에는 반드시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뒤따라야 하며 그것은 죄를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는 일시적으로 회개하였으나 악을 좇으려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베드로후서 2:22)워 버리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말일에 주신 계시에서 계속하여 선을 행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 주는 너희에게 아무 죄도 지우지 아니하노니, 너희 길을 걸으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겹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82:7)

다소의 사울도 그의 눈을 멀게 한 하늘의 빛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뒤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름도 바울이라고 고쳤습니다. 잠시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지내다가 그의 시력은 아나니아가 준 축복으로 인해 회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사도행전 9:20)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개종에 관해 말한 기록에는 사도행전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가 개종한 후에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합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제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오 일을 유”(갈라디아서 1:17~18)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합류했을 때에도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사도행전 9:26)였습니다. 교회를 멸하는 사람이라는 바울의 명성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향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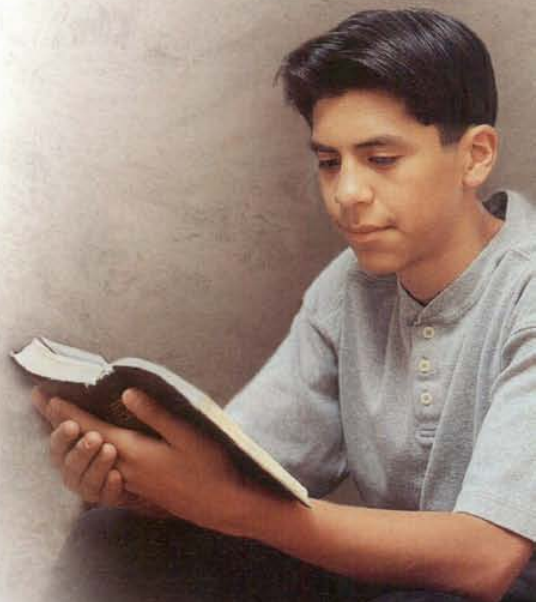
#### 마음 먹은 것을 나타내 보임

선이나 악에 대한 우리의 성향이 나타나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신을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동정심에 어긋나는 인종 편견적인 농담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인내심 있

고 오래 참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운전 중에 앞으로 갑자기 끼여든 다른 차 때문에 불끈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장이나 이웃에게 인정 많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은 우리를 인정 없고 불친절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활용, 특히 여가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선이나 악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서 충실하며 현명한 자는 나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집을 상속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 받으느니라.”(교리와 성약 72:4) 어떤 사람들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 데 쏟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성전 방문과 경전 공부, 다른 양서 읽기, 어린 자녀에게 읽고 쓰는 법 가르치기, 병원에 있는 환자 방문, 이웃과 복음 나누기, 가족 기록서 작성, 지역 사회 발전 사업 그리고 기타 수 많은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역시 선이나 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만성적인 비판과 끊임없는 염세주의, 그리고 그와 유사한 태도들이 빈정거림, 냉소적인 태도는 종종 주님에 대한 신앙심과 신뢰의 결여를 의미하며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위대



한 행복의 계획을 기다리는 데 있어 우리를 감아먹는 조바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니파이이서 31:20)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물론경 마지막 장에서 모로나이는 “신앙이 있어야 하리니,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요 소망이 있을진대 사랑이 또한 있을 것이라.”(모로나이서 10:20)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랑, 신앙, 소망 등은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모로나이서 10:21참조)

그런 후에 모로나이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소망이 없으면 웅당 절망할 것이라.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나이서 10:22) 모로나이는 절망이 역경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계에 미치는 시험을 받고 상처 자국이 남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변함없이 충실하게 남았습니다. 절망을 야기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신앙과 소망의 근원인 보혜사와 소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신앙의 결여와 소망의 부재,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했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에게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앙과 희망, 자비를 통한 치유가 없다면 실망은 곧 슬픔으로, 나아가 이내 절망

우리가 시간 활용, 특히 여가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선이나 악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으로 변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인생이란 도전입니다. 다소간의 근심과 침울과 실망과 실패를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그들이 때때로 또는 잇달아 불행을 당하더라도 굳게 서서 그것을 직면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인생의 투쟁에는 목표가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145쪽)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간증과 신앙,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은 결코 분노나 절망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간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향

우리 인간들의 성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향을 비교해 봅시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구세주께서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요한복음 8:28~29) 겐세 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그리하여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모사이사서 15:7)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은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창세기 22:3)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제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서 주님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가 계속하여 선행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인 요셉은 악을 피하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려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또 다른 감동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세기 39:9) 그런 다음 그는 그 여자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킬 때마다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보디발의 부인을 만나기 오래 전에 이미  
결코 하나님께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였  
습니다.

사람들은 엘마를 거절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앰몬아이하 성에서 그를 쫓아냈습  
니다. 그 때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적의가  
가득한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  
였습니다. “엘마가 … 급히 앰몬아이하로  
돌아 갔”(엘마서 8:18)다는 사실은 하나  
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선을 행하려는 그  
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보다 강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에  
관련된 사건과 그 후에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젊은  
이로서의 약점과 인간의 결점을 드러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곧 “내가  
실제로 어떤 큰 죄나 증오할만한 죄를 범  
하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나에게는 이러한 죄를 범할 성질은 결코  
없었습니다.”(요셉 스미서 2:28)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예언자의 천성적인

경향은 시온 진영에서 나타났습니다.  
1834년 5월, 예언자와 몇몇 형제들이 일  
리노이 별관에 천막을 치려고 할 때 형제  
몇 명이 갑자기 세 마리의 방울뱀을 발견  
하고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언자가 즉  
시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이지 마시오. 하나님의 종까지 적의를  
버리지 않는데 어찌 뱀이 그 적의를 버리  
겠습니까? 사람이 동물에 대한 적의를 버  
리고 살의를 버릴 때 사자가 어린 양과 함  
께 거하며 쫓는 어린이는 독사의 굴에  
서 놀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9년 4  
월호, 66쪽)

그러한 것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  
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  
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마  
태복음 5:44; 6:14)라고 말씀하신 구세  
주의 권고에 의해 생겨나는 마음인 것입  
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은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가족이  
받는 축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세계  
와 온 인류에게 축복이 내려지기를 열망  
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64쪽)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본인과  
수행원들을 지치게 하는 팍 찬 여행 일정  
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  
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가정의 편안  
함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하는 마

음을 보여줍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주님께서는 현대의 계시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생  
각하자마자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교리와 성약  
121:39) 우리는 자신에게서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불의한 지배력을 더 쉽게 간  
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솔직하  
고 단호하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반면 다른 사람은 우리를 불  
친절하고 융통성 없고 불합리한 사람이라  
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지배력  
을 저지하는 훌륭한 수단의 하나는 교회  
에서 회장단을 구성하는 원리와 평의회 시  
스템입니다.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구하고  
다른 사람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  
고 가족이 함께 상의할 때 그들은 일반적  
으로 주님께서 승인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07:26~31)

선이나 악을 행하려는 의도는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과 총  
관리 역원의 권고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들은 십일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의를  
내리지만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대  
하게 해석하려 합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  
원회 회원이었던 매리온 지 롬니  
(1897~1988) 장로의 말씀에 다음과 같

불조심함  
 불조심함  
 불조심함  
 불조심함



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수가 사탄을 거스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려 합니다.”(“평화의 대가”, 올해의 말씀, 1955년 3월 1일, 7쪽) 그러나 많은 충실한 말일성도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던 구세주의 성향을 반영합니다.

### 성약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킬 때마다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신권 의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늘에서 오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가 하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고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과 충실하게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정숙한 복장, 후한 금식 헌금과 십일조를 바치는 일, 지혜의 말씀 준수,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에 관해 긴 설교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성전에 자주 참석하는 것, 가족 역사 탐구,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 등을 하라고 엄격하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병자를 방문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 봉사 하라고 채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섬길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 사함을 얻은”(교리와 성약 20:37) 사람들로서, 주님의 집에서 거룩한 성약을 맺는 가장 높은 이의 충실한 성도들입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남의 집을 나누어 가 법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 고난 당한 자를 위로 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이야서 18:8~9)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헌납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재정적인 것은 모두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인간들의 사악한 성향이 사라질 때 … 사자와 양이 함께 거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신 계명을 지”(교리와 성약 20:77)입니다. 성약을 지키는 일은 성찬 축복문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 즉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교리와 성약 20:77)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영을 동반하는 일은 선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저는 우리가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니파이이서 31:20)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선행을 하계”(모사이야서 5:2) 했던 마음을 지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진 촬영: 헬리 프렛트

## 왜 나는 십일조를 내는 일에 관해 걱정해야 하는가?

제가 버는 돈은 아주 적어서 제가 십일조를 내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십일조를 내는 것을 걱정해야 할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의 대답

십일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곧 성전 및 집회소 건축, 선교 사업 지원, 교회의 일상적인 운영 비용 등등, 그 사용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일조에 관해 제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지구 전체와 수많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입니다. 만일 원하시지만 하면, 그분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든 그분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께서는 길에 늘어서 있는 자갈을 다이아몬드로 바꾸어서 집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거두게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교회 지도자들을 고기를 낚으러 보내어서 그 입에 갇힌 동전을 물고 있는 고기를 잡게 할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7:27 참조) 아니면 그분께서는 교회의 자원이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7:8~16 참조)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일조의 율법이 주님의 사업을 단순히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이상의 보다

커다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커다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독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십일조의 율법은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십일조를 내는 각 사람을 영적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십일조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낸 십일조로 교회의 문 손잡이나 찬송가책을 얼마만큼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기꺼운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십일조는 중추적인 계명으로서, 여기에는 보다 큰 다른 사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교회 회원들만이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시에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리와 성약 64:23 참조)

십일조를 내는 것은 주님에 대한 한

사람의 결심을 재는 영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1838~1918)께서는 이 율법이 말일성도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가 하나님 왕국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 누가 이 원리에 반대하여 스스로 시온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 276쪽)

십일조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십일조는 보다 높은 율법인 헌납의 법, 곧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상속을 얻기 위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하는 율법의 일부인 것입니다. 헌납은 우리 자신의 생활을 포함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모든 것을 이 곳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기꺼운 마음입니다. 10퍼센트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인 것입니다.



## 독자들의 대답

십일조를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루스 키시  
스웨덴 스톡홀름 서 스테이크  
저스텐 와드

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십일조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의 부모님의 모범과 제 자신의 간증으로 인하여, 제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데이비드 펄즈히  
프랑스 니스 스테이크  
살롬 와드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십일조를 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더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낸 적은 금액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누타 펠리그 갈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스테이크  
미엘 와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렘돈을 헌금한 가난한 미망인의 예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에 대해 답하셨습니다.(마가복음 12:41~44 참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마음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내는 것

의 양이 아니라 그 질을 생각하십니다.

이바로 아페즈 장로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 선교부

우리가 정직한 십일조를 낼 때,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영적일 수도 또는 물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도 정직한 십일조를 내서 받게 된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도 십일조를냄으로써 오는 축복입니다.

안토니 엘 엑페수  
나이지리아 칼라바 지방부  
칼라바 제2지부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우리 수입의 십분의 일을 정직하게 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그분의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은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완전한 십일조를 낸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될 것이며, 우리의 밭에서 나는 수확은 풍성할 것이며, 또 주님의 사업은 발전할 것입니다.

아르멜 에프 세베린 이코우에 장로  
아이보리 코스트 아버지안 선교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수입이 많지 않은 직장을 갖게 되었고, 매우 작은 금액을 십일조로 내게 되어 적지않게 당황하였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누가복음 21:1~4 참



루스 키시



데이비드 펄즈히



다누타 펠리그 갈보



이바로 아페즈 장로



안토니 엘 엑페수



아르멜 에프 세베린 이코우에 장로



파빈 아르코테 몬탈보



무스타파 티나 자메



이후오마 치디에벨



지안 피에레 모레이라



조) 그 일로 해서, 그러한 생각이 다시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는 보다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저의 선교 사업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파빈 아르코테 몬탈보  
콜롬비아 네이바 스테이크  
라스 그라냐스 와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는 구세주의 훈계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마태복음 6:19~21 참조) 우리는 우리가 십일조를 내는 것에 대한 축복으로 항상 더욱 많은 돈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십일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게 되는 축복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은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온 시간을 바쳐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스타파 티나 자메  
나이지리아 에누구 선교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서 우리의 십일조를 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십일조를 내거나 두려워서 낸다면, 인색한 마음을 갖고 내는 것이며 아마 어떠한 축복도 기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실되게 십일조를 내지만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한한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시지만, 이러한 축복들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후오마 치디에벨

나이지리아 우무아히아 스테이크  
우무와나 지부

우리가 십일조를 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2) 우리가 얼마만큼을 내든지 간에, 우리는 지상에서 시온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그것은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켜 줍니다.

지안 피에레 모레이라  
브라질 호이네벨 스테이크  
이팅가 와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1년 8월 1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08/01,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편지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학교에서 제 나이 또래의 소수 회원들이 저를 놀리거나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아예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의 유일한 친구들은 비회원들 뿐입니다. 제가 저의 와드에 있는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그리스도 같은 비회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까? □

# 금식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키움

**엘**마는 놀랍게도 14년간 레이맨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고 돌아오던 친구들인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이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것을 알고 기뻐했다. 한때 엘마와 모사이아 왕의 아들들은 교회 회원들을 핍박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심한 이후 “열심히 복음을 연구”하였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기” 때문에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엘마서 17:2~3; 또한 모사이아서 27:8~37 참조)

##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 영혼을 바침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이 계명을 지키고, 경전을 공부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일을 할 때 금식과 기도를 병행해야 한다.

물론경에서 그보다 이른 시기에 아멜레카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영육을 주 앞에 드리며 쉬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면”(욥나아서 1:26) 구원을 얻게 된

다고 간증했다. 사람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교리와 성약 88:15 참조), 우리 영육을 드린다는 것은 육과 영의 욕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식과 기도는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마태복음 5:6)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달에 한 번 금식 주일에 하도록 장려되었듯이, 연이어 두 끼를 금식하는 것은 영을 정결케 하고 육을 다스리도록 영을 강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성신의 기쁜 영향을 가져다준다.(교리와 성약 59:12~14 참조)

##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유태 주 오렘의 세릴 콘디 캄프턴은 금

식과 기도가 영적인 힘을 준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저를 괴롭히던 한 가지 특별한 유혹을 이겨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유혹을 이겨 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금식—기쁨의 은사”, **엔사인**, 1978년 1월호, 12쪽)

금식이 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열렬한 기도가 따라야 한다. 더욱이, 금식 헌금을 낸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

우리는 금식을 적절히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건강이나 기타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금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금식의 법에 참여해야 한다. 금식할 때 우리는 그렇게 행했던 니파이인들처럼 축복을 받는다.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겸손한 중에 더욱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위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여 지매 마음이 청결하며 성결하게 되니, 이는 오직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았음이라.”(힐라맨서 3:35) □



# 구세주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내가 앉아 있는 줄에 성찬기가 전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난처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일요일은 내 생애 최초로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성찬기가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자 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내가 성찬을 취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말이다.

“성찬기가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머리를 숙이며 그것을 재빨리 통과시켰다. 나는 마치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전주에 나는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감독실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부끄러워서 울기 시작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그 분께 말씀드릴 때, 나는 그 분이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감독님 또한 울고 계시는 것을 눈치챘다. 감독님은 내가 그 분에게 찾아 와줘서 기쁘다고 하셨다. 내가 가진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분이 주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느낌이 좋았다. 또 속죄의 원리를 내 생활에 적용하려 노력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좋은 느낌이 들었다. 감독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나의 느낌을 그 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독님과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 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은 ‘형제님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결국 잘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으로 성찬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으며, 감독님께서 다시 성찬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똑 같은 경험을 반복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에서 회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의 이 경험과 고통 때문이라도, 다시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처하고 싶지 않다. 성찬을 취하지 않는 것은 힘

든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은 나를 위한 구세주의 희생에 대해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죄는 추악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며, 합당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난처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그러한 느낌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죄는 자신에게, 주님께, 그리고 그 범법으로 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더욱 심각하여서 적절한 신권 권능을 가진 사람, 일반적으로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고백하여야 한다. 그러한 심각한 “죄에는 간음, 사통, 기타 성적인 범죄 및 이에 상당한 무거운 죄들이 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용서가 낳는 기적*, 164쪽)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심각한 죄를 고백하는 데는 진정한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고자 하는 바람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평안하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이든,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다.(교리와 성약 19:16) 아마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야 비로소 완전해 질 것이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각자를 위해 그분이 치르신 대가에 놀랍니다.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 방울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1쪽)

우리가 혼자 힘으로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종종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가까운 곳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확신을 주셨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





# “간증과 증거”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 당시의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신의 은사입니다. ... 고려해야 할 다른 모든 사상은 성신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42; 델린 에이치 옥스,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59~60쪽)  우리가 성신을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의 하나입니다. 성신은 진

리를 증거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성결케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부여하며, 심령이 상한 자를 고쳐 주고, 계시하고 가르치고 위로해 줍니다. 성신은 근본적으로 화평의 영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다음의 여러 이야기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마음 속으로 행복을 느끼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평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해 줍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35쪽)



## 더 높은 시야

휴고 이바레스

**저**는 하늘을 나는 것을 늘 꿈꾸어 왔습니다. 그 결과 1961년 12월, 21세가 되었을 때 저는 조종사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비행기에 오르곤 했습니다. 잠시 동안 비행을 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자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다음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일 년 후쯤 84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저는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비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자신이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비행을 하면서는 찾을 수 없는 내적인 평화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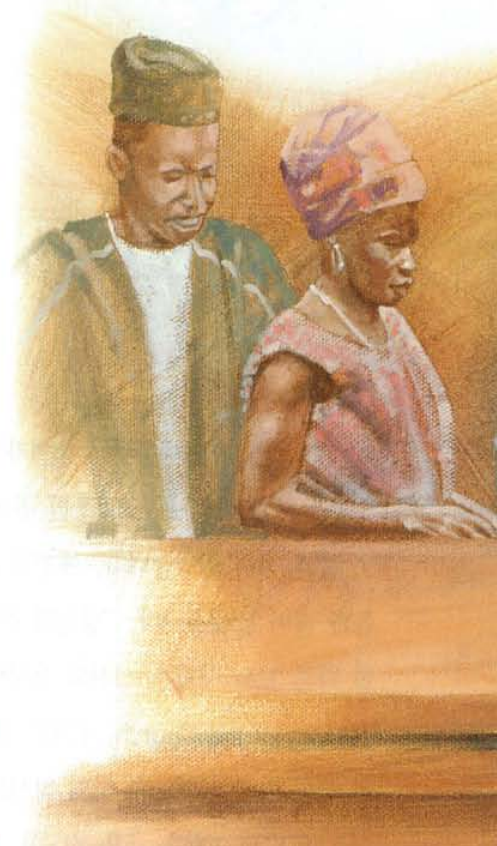
열 달 동안 방황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을 지상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 철학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18년 동안 여러 교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중 몇 개의 교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자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청소년 그룹에 가입시킬 십 대의 아들 두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스카우트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묻자 그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에게 이 교회는 성경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과 물문경을 믿는다고 했

그림: 데이비드 린슬리, 요셉 형제, 삼화, 브라이언 콜



습니다. 그는 다음 일요일 교회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열세 살 된 아들 마르셀로는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열다섯 살짜리 큰 아들 세르지오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 아이는 마지못해 함께 갔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자 몇몇 회원들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연세 많은 분이 우리를 선교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그들은 그날 우리에게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마르셀로도 우리와 함께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감동을 받았으며 1980년 2월 16일에 저는 두 아들과 함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 이사벨은 한 달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자신의 밖에서 내적인 평화를 찾기 시작한 지 거의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비행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먼 곳을 바라봅니다. 공중에서 바라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있으며 다음 세상에 훨씬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후고 이바레스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서스테이크 몬테비데오 제4와드 회원이다.

## 저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라이디 제보 바히

**저**의 부모님은 제가 아직 그 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습

니다. 막내이자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저는 앞길이 막막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롭고 연약해진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워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저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 오빠와 언니들은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충격을 받았으므로 조용한 곳에서 절대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하며 책을 읽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저의 삶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어머니와 함께 사는 친구들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어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언니 오빠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도시에서 그들과 가까이 살 수 있는 다른 도시로 저를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알폰신 언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언니와 형부 그리고 조카들은 저에게 너무나 친절했으며 저는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언니의 큰 아들, 파엣트 나테즈가 제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소개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정신을 수습하고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복음의 권세를 접하게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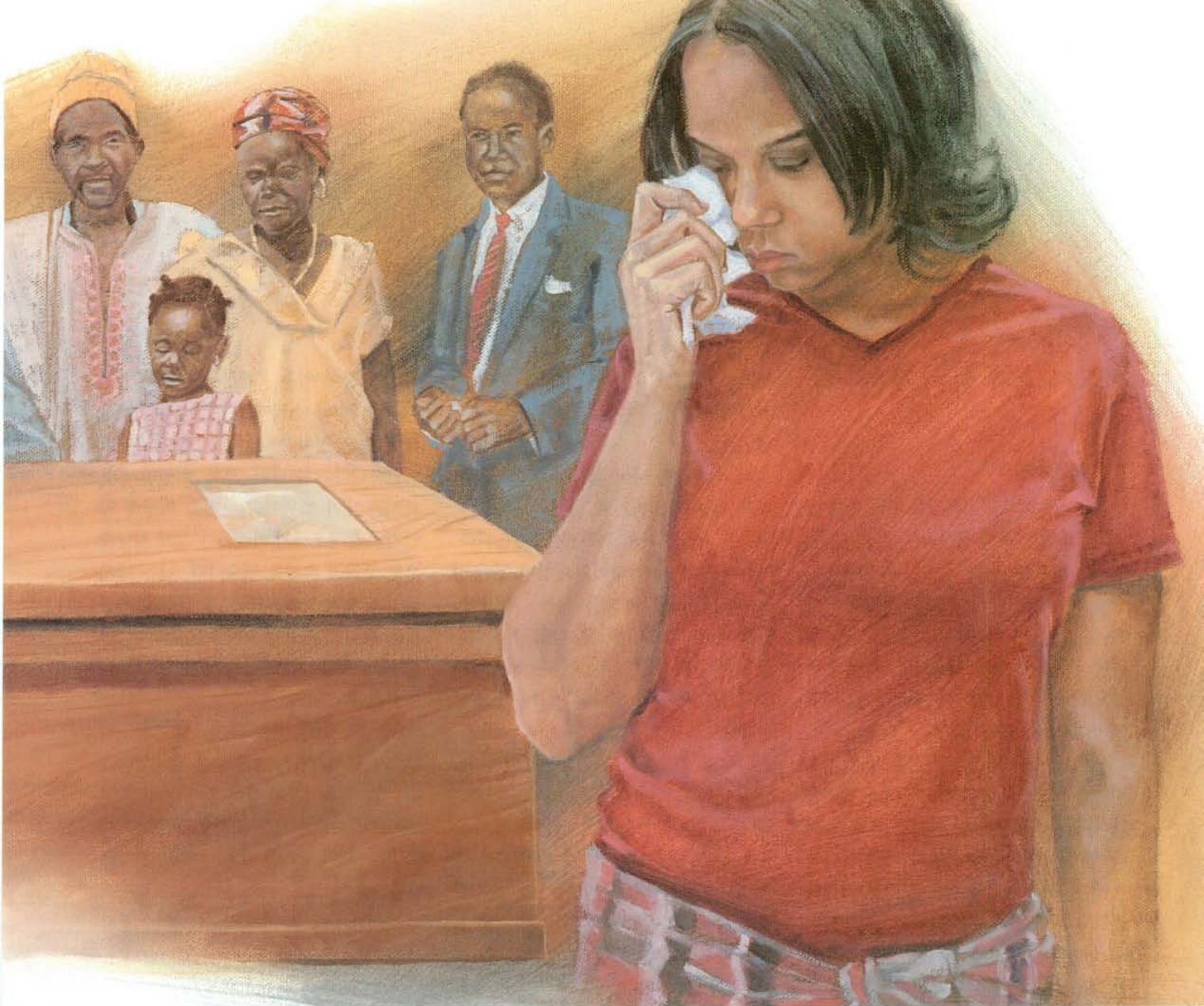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상호부조회와 청년 자매님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막내이자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별세로 인해 앞길이 막막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맞아주셔서 저는 다시 부모님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교회에 참석했으며 얼마 후에 선교사 토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스트 장로님과 베코인 장로님이 저에게 주신 첫번째 과제는 몰몬경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책도 읽지 말고 정신을 집중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몰몬경을 읽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진지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 기도해 보도록 격려해 주었으며 주님께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이 권고해 준 대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18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곧 상호부조회에서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지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상호부조회에서 보좌로 봉사했으며 다시 지부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모든 부름을 통해 저는 강화되었으며 그 부름들은

제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더 이상 기쁠 수 없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봉사한 최초의 자매 선교사 중 하나였습니다. 긍정적인든 부정적인든 제가 경험한 것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지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저에게 우정을 보여 준 분들에게 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 크고도 사랑이 넘치는, 제가 아는 영원한 가족,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저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슬프게만 보일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삶과 행복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더 제보 바히는 아이보리코스트 아비잔 선교부 부익 제2지부의 회원이다.

## 반드시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

켈리 에이 하워드

**출**장을 마치고 시골길을 따라 차를 몰고 오는 동안 감사와 깊은 외로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성취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문득 텅 빈 아파트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 왔습니다.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떠나 있기는 선교 사업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몇 달 전 짐을 챙겨 집을 떠나던 어느 날 아침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직장이나 학교로 가고 난 뒤라 집에는 어머니만이 남아 계셔서 나에게 혼자 사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문가에 서서 눈물을 감추려 애쓰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진정해” 하고 나는 자신에게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제 스물 네 살이야.” 내가 어떻게 시카고에 오게 되었으며 도시가 그렇게 큰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 교차로에 위치한 시카고 시어스 타워 110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다음 세계에서 가장 북적대는 공항 가운데 하나를 보러 나갔었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7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차들을 내려다보는 동안 그 차 안에 있는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두 알고 계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

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나의 생각은 다시 혼자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왔으며 나는 위안을 얻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우리 개개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했지만 나의 마음은 외로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중에 백미러를 통해 대형 트럭이 내 뒤에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속도를 늦추면서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약간 오른쪽으로 비켰습니다. 그는 속도를 내어 내 차를 추월해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일단 내 앞으로 간 그는, 내가 했던 것처럼 속도를 늦추어 차를 옆으로 비켜주더니 나더러 추월을 하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가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속도를 높여 트럭을 추월할 때 운전사는 손을 흔들더니 경적을 울려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빨리 간격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는 다시 내 옆으로 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추월하면서 그가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트럭은 나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트럭에 붙어 있는, “행복은 가정의 밤에서”라는 범퍼 스티커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탄성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교회 회원일거야. 하지만 내가 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휴게소까지 따라가자 그가 식당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낮익은 범퍼 스티커를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이었고 나는 배가 고프던 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 뒷유리창에 붙어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스티커를 보고 회원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뭔가 음식을 먹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말일성도입니다. 정말 배가 고프군요.”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켈리입니다. 가정의 밤 스티커를 보고 역시 회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전 회원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제이크가 식사도 하기 전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자녀를 모두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평생토록 느끼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

획에 관해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차를 뒤따라가다가 뒤에 붙어 있는 BYU 스티커를 보고 형제님을 꼭 만나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제이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안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제이크가 그 달 말경에 아내와 함께 성전에서 인봉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이 얼마나 훌륭한 간증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간증을 나누어 준 제이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게 해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선교 사업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각 자녀를 아시고 염려하신다는 것과 제이크와 같은 훌륭한 말 일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

켈리 에이 하워드는 유타 레이드 케이스 크리크 스테이크 컨트리 옥스 워드의 회원이다.

그는 다시 내 옆으로 와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추월하면서 그가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되어

자녀의 교사라는 우리가 받은 신성한 역할 안에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도움을 비롯하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널드 엘 나이트  
교과 과정부 관리 책임자

**책** 읽은 분명합니다.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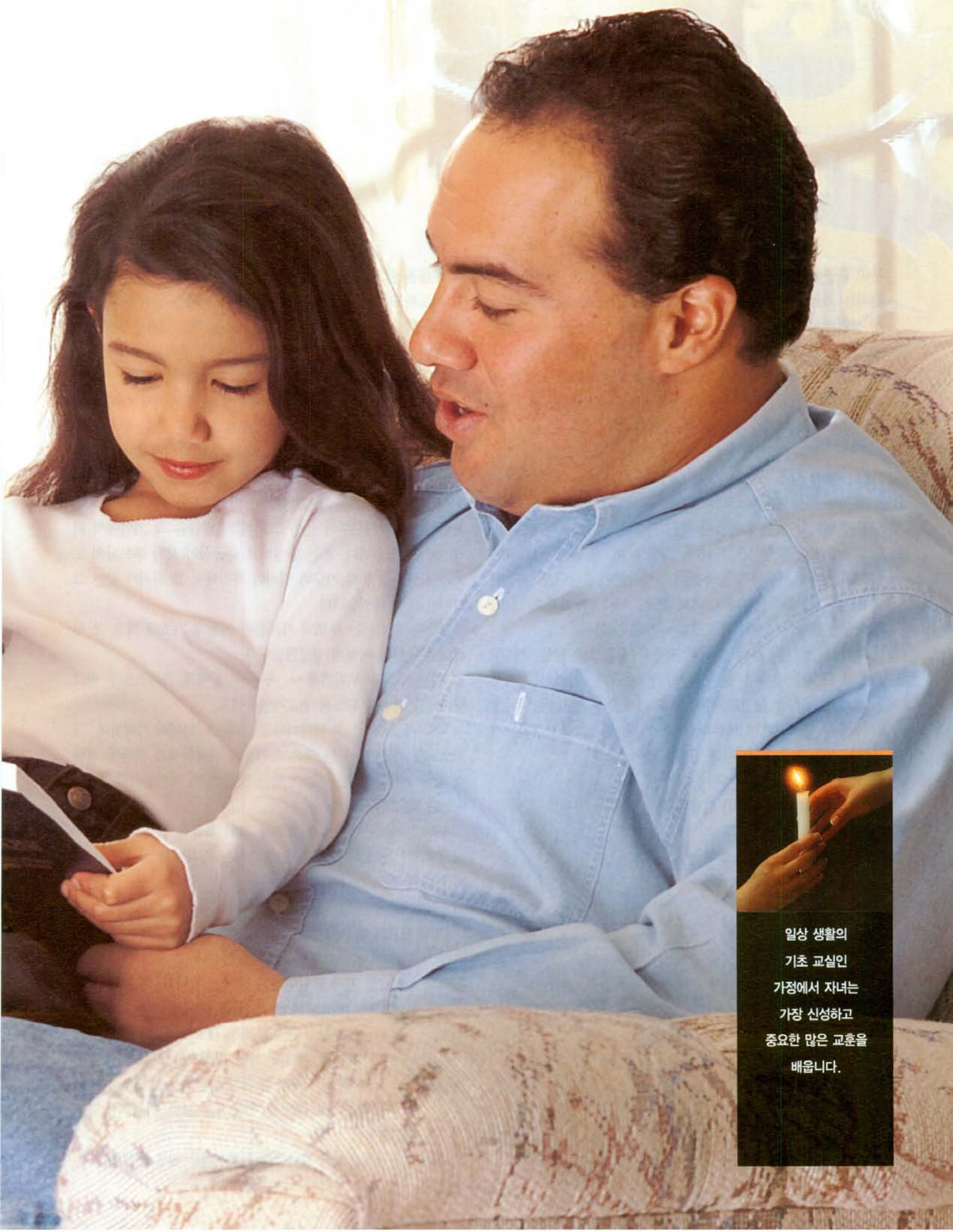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26, 28)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첫번째 책임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연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간증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가정에서 받은 가르침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의로운 부모의 소망이요, 바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교사로서 훈련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세미나리 교사와 보조 조직 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데 이보다 더 훌륭한 어떤 자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외부의 교사들이 아



일상 생활의  
기초 교실인  
가정에서 자녀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가르침을 보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에서 얻는 일상적인 모범과 경험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때 우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도구를 활용하려고 노력할 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능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잊고, 그 가르치는 능력을 과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 거룩한 장소

가정은 일상 생활과 교회의 기초 교실입니다. 가정은 그 신성함에 있어서 성전에 비유됩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신성함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1899~1973)은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대회 보고, 1973년 4월호, 130쪽; 또는 *엔사인*, 1973년 7월호, 98쪽 참조)

제가 세 살 때, 우리 가족이 지붕을 진흙으로 만든, 방 두 칸짜리 조그만 집에서 살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성홍열에 걸려 의식을 잃고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밖에는 폭풍이 심하게 몰아쳤으며 어머니와 네 살 된 형, 그리고 저는 지붕에서 새는 물을 받기 위해 냄비, 깡통, 물통 등을 갖다 댔습니다. 어린 여동생은 아버지 곁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냄비, 깡통, 물통 등을 벌여 놓고 나서 어머니는 형과 저를 불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냄비, 물통 등을 벌여 놓고 나서 어머니는 형과 저를 불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더 많은 말이 있었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신앙의 말들은 제 기억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어머니께서 제가 기도하도록 여러 번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 내용을 도와주셨던 것이 기억 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빠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아빠가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방이 새지 않아서 아빠의 몸이 쪼티 않고 그래서 더 아프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항상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더 많은 말이 있었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신앙의 말들은 제 기억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충실하고 순종심이 강한 부모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 기도의 원리와 가정에서 그 원리가 갖는 그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부모의 가르침이 어떻게 기초가 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 자녀 … 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 … 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함이라.”(니파이서 25:23, 26)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모범과 교훈을 전해 준다는 견지에서 생각할 때 거의 무한한 것 같습니다.

### 역할 모델의 힘

가장 위대한 교사 셋이 있는데 그 셋은 모범과 모범과 모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모델로 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 즉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봉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종종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는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비교적 덜 형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용서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사랑과 친절을 가르치고, 감사함으로써 감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복음의 성약을 맺고 지키며 구원의 의식을 받을 때 자녀들은 이러한 순종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보고 영향을 받아 그것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정직과 성실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참여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받아들이고 말한 것을 실천함으로써 책임의 덕성을 가르칩니다. 모범으로서 사랑과 친절과 기뻐하는 것을 보여 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에 참여할 때, 자녀들은 모범과 행동을 보고 똑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장차 어떤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얼굴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모습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의 친할머니는 64세에 미망인이 되어 101세까지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물질적으로 별로 가진 것 없이 작은 집에서 사셨지만 사랑과 친절과 희망을 전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신앙의 본보기였습니다.

건강 문제와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영원한 낙천주의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 69명의 손자 손녀, 210의 증손, 49명의 고손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사랑과 격려를 드리기 위해 할머니를 찾아가갈 때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아 왔습니다. 할머니는 참으로 많은 값진 것들을 축복으로 받으셨으며 고귀한 모범으로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얼굴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은 정규 교육은 겨우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분은 가장 심오하고 영향력 있는 교사였습니다.



건강 문제와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영원한 낙천주의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귀한 모범으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였습니다.

### 가장 훌륭한 행동에 대하여

현명한 부모는 부정적인 성품이나 행동의 모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증오심을 품고 있는 영혼은 그로 인해 파멸되고, 질투심이 지배하는 사람의 인격은 그로 인해 상처 입고, 비판과 격한 판단은 우정을 파괴하고, 편협한 생각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도 훌륭한 행동을 보이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한을 품는 일, 결점 찾기, 잔소리, 비꼬기, 논쟁, 불평, 바웃음, 적개심 등을 피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더 훌륭한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녀에게 용서가 낳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제가 아론 신권 소유자였을 당시 스테이크에 있는 한 영향력 있는 역원이 불법적인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많은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이셨으며 친절하고 관대하셨던 아버지는 가족을 모두 모아 놓고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강화하고 또한 봉사를 통해 그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훌륭한 사람들은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봉사하도록 부르신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항상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지도자에 대해 아버지가 품고 계셨던 관대하고 사랑에 찬 감정은 저에게 강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것은 제 삶에 지침이 되는 원리가 되어 왔습니다.





### 말씀과 교훈의 힘

친절한 말을 합시다.—다시 말해 사람을 교화시키는 말을 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1) 부모로서, 품위 없고, 비판적이고, 실망시키거나 낙담케 하는 말을 피할 때, 이를 통해 자녀들은 해를 끼치는 습관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설적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말을 골라 사용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 집에 있으나 어디나”(찬송가, 151장) 찬송가는 많은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며,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진리에 대해 성신의 증거를 불러오는 동시에 위안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진 교훈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그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서 어려서 배운 노래는 평생 생각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족으로서든, 우리가 가끔 찬송가나 초등학교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라고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좋은 가르침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배움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관심

사,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묻되 말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가는 질문을 하십시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에 대해서 너는 어떤 것을 알고 있니?”, “네 생각은 어떤지?”, “...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어쩌면 십대 자녀 한 명이 친구와 함께 하드 록 콘서트에 가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음악과 행동이 복음의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콘서트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자녀는 그 말에 대해 방어 태세를 취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도 되느냐고 물어봐 주어서 고맙구나. 그런데 웬지 네가 거기에 가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구나. 내게 왜 이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개인적으로 비판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원리를 토론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저는, 우리가 자녀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교리나 원리에 대한 답을 주거나 말할 때, 그들이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녀와 함께 감정과 이해를 나눌 때 우리는 배움을 가져오는 복음에 관한 대화를 자녀들과 가장 잘 할

우리가 일상적인 모범과 경험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때 우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수 있습니다.

### 인생의 교훈

종종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는,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덜 형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상담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효과적인 가르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의 밤, 자녀와 나누는 일대일의 대화, 가족 평의회, 가족 경전 읽기 등과 같은 좀 더 형식적인 환경에서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 진지하게 간증하고자 할 때 성신은 그들의 마음에 그 원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것입니다.

가르침의 기회란 종종 예기치 않은 때나 특이한 상황에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성탄절에 두 아들에게 10단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낡은 자전거를 타고, 새로운 10단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 살짜리 둘째 아들이 기어를 바꾸려고 톱니바퀴를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는 주차되어 있는 차의 후미를 받았습니 다. 저는 앞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딪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즉시 아이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입에서 피가 흐르고 앞니가 부러진 것을 보았을 때 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의 얼굴이 차 트렁크에 부딪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6년 전에 이미 부러진 적이 있었던 아이의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팔에



제가 아이를 팔에 앉자

그는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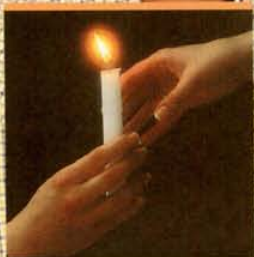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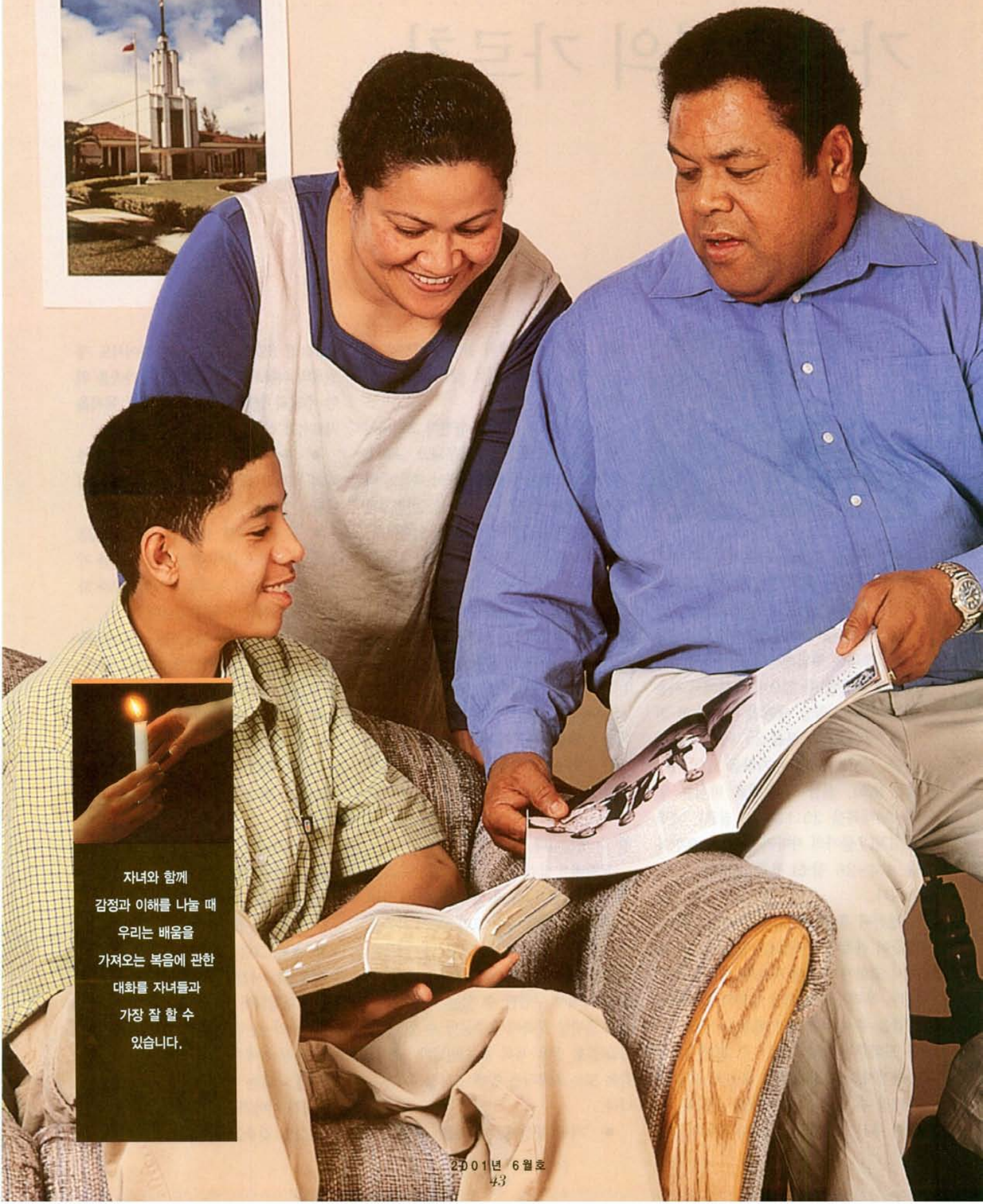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난 왜 항상 뭐든지 이렇게 어렵게 배워야 하나요?”

앉자 그는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난 왜 항상 뭐든지 이렇게 어렵게 배워야 하나요?” 가르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와 그들이 겪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일상 생활에 연관지을 때, 그것은 자녀들에게 참된 의미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신은 우리가 배운 바를 가르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때로 하나님 외에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교회의 공과반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훌륭하게 가르치도록 영감을 주시겠지만, 가정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부모들을 가르쳐 준 현명하고 훌륭한 교사들과, 현재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조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범과 교훈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이사야 54:13) □



자녀와 함께  
감정과 이해를 나눌 때  
우리는 배움을  
가져오는 복음에 관한  
대화를 자녀들과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의 가르침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전입니다. 경전에 주님은 복음의 모든 기초와 그분이 직접 행하신 가르침의 예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모델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사용하신 비유와 일상 생활의 이야기(열 처녀의 이야기, 마태복음 25:1~13 참조;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5~27 참조), 실물 공과(세로 바치는 동전, 마태복음 25:15~22 참조), 개별 메시지(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4~26 참조) 등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경전이 훌륭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승인한 자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자료, 즉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복음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자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

러한 자료들은 고대와 말일의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어 있는 지역에서 매월마다 배부되고, 교회가 완전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복음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지역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배부되는 잡지 *리아호나*가 있습니다. *리아호나*에 있는 기사들은 오늘날 회원들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에서부터 회원들의 간증과, 간단한 소식 및 의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사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월호 48쪽에는 그 달의 기사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제언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리아호나*에 실리는 연차 대회 말씀(1월호와 7월호)은 교회 공식 웹 사이트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이외에도 교회가 출판한 서적, 교재 및 기타 많은 인쇄물들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회소 도서실로부터 대여되거나,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교회 출판물 목록에서 주문할 수 있는 자료들(괄호 안은 목록 번호)입니다. 서기, 감독 또는 지부장을 통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35602 320),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으며 가족을 위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지상의 목적을 가르치고 상기시켜 줍니다.

■ *가족 지도서*(31180 320)는 가족의 목적과 조직을 요약한 기본 책자입니다.

■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36123 320)은 교회의 교사 향상 과정을 위한 기본 교재로서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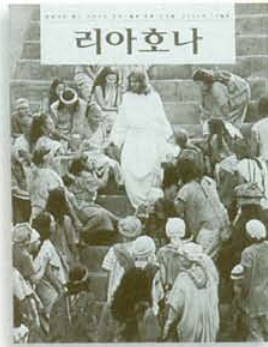
■ *교수법 지도서*(34595 320)는 특별히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 *우리의 유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35448 320)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을 강조하고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입니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34285 320)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품행의 표준을 요약해 주며 성인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됩니다.

■ *복음 그림 팩킷*(34730 320)에는 경전에 있는 사건들을 묘사하는 그림과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약 성서 이야기*(31119 320)와 *몰론경 이야기*(35666 320)는 각기 그 책에 나오는 시대와 장소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해 주고 지도와 용어 해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들(35863 320)에는 고대와 현대의 선전의 역사, 목적 및 용도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 복음 원리(31110 320)는 주일학교 복음 원리반 교재로서 복음 계획에 관한 기본 교리와 원리를 요약해 주고 있으며 35개의 찬송가와 10개의 어린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가족을 위한 훌륭한 자료입니다.

■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35744 320)는 말일의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을 수록하고 있는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책으로서 개인 학습 및 둘째와 셋째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반과 상호부조회 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1과정 및 제2과정(31111 320, 31112 320)은 각각 35개의 공과가 수록되어 있는 교재로서 내용은 신권과 개인적인 의로움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정 및 제2과정(31113 320, 31114 320)은 각각 35개의 공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개인적인 의로움을 향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출판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주문에 관한 안내는 교회 출판물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됩니다.

■ 찬송가(31243 320)와 어린이 노래책(35395 320)은 가족이 모임에서 부르는 찬송가와 노래를 가정에서 부르도록 권고해 줍니다.

■ 거룩한 성전(30959 320)은 신권 지도자와 부모가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이 저술한 같은 제목의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이름 미공개 삽화 스티브 크롭

**내**가 열 네 살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께서는 내게 암호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셨다. 내가 친구들과 새로운 모험을 찾으려 문 밖으로 달려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몰랐지만, 나는 이해하는 척하며 고개만 돌려서 소리치곤 했다. “알았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때때로 나는 엄마의 암호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곤 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자라오면서, 가족과의 생활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좋지 않았던 어느 날 밤, 아버지께 여러 차례 맞아 벌개진 뺨으로 인해 거울 속의 얼굴을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던 일을 기억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울기 시작했다. 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더 나아가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그만 끝





내 버릴까 하는 생각도 떠올랐다.

그 이전이나 이후로 그때처럼 외로움을 느껴 본 적이 없다. 너무도 지쳐 버린 나머지 나는 주위를 둘러싼 어둠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라고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때, 어머니께서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마음속에 들려 왔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처음으로 나는 어머니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가 받은 신성한 유산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의 가사가 마음속으로 메아리쳤다. 갑작스러운 그 생각은 어리석은 짓을 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의 본질이 신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훨씬 잘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그 점을 이해하고 계셨으며, 나 또한 언젠가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유산을 이해하고 계셨던 완전한 본보기이시다. 경전은 그분이 어려서부터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누가복음 2:52) 가셨다고 말해 주고 있다. 그분의 이해력이 커질수록,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추어 나가셨던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도록 요구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한 유산에 관한 이해력을 키워 주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경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배울 수 있다.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서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잠재력에 관해서 배울 수 있다. 신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상기시켜 주는 영감 받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성전에서,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될 때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날 밤 이후로 여러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암호 같은 어머니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내 앞에 놓인 과제들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국 성전에서 결혼하고 또 나의 남편과 함께 노력해 복음에 튼튼한 기초를 두고 가족을 양육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종종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이 지상으로 떠나오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을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곤 한다. 나는 그분이 나를 포옹하고서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그려 보기를 좋아한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

# 리아호나

## 2001년 6월호 활용하기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가르침과 토론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에 나온 숫자는 이번 호의 쪽 수를 나타냅니다. 친=친구들)

### 유용한 아이디어

■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2 쪽: 청소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다섯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아이디어 각각을 자신에게 적용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 “계속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14쪽: 여러분의 일부 기질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질은 욕망에서 자란다”는 것을 숙고해 본다. 자신의 욕망이 바뀌도록 간구하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도록 한다.(니파이삼서 12:6)

■ “구세주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26쪽: 자신의 감독에게서 회개를 위한 도움을 받은 청소년의 글을 읽는다. 죄와 회개와 주님 앞에 청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46쪽: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이 청년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신의 성약에 참되다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 이번 호의 주제들

가르침 .....	36, 44
가정 복음 교육 .....	7
가정의 밤 .....	48, 친10
개종 .....	8, 14, 28
개혁자 .....	친2, 친5
금식 .....	25
기도 .....	25, 28, 친12
방문 교육 .....	25
병고침 .....	28, 친14
봉사 .....	2
부모가 됨 .....	36
선교 사업 .....	8, 28, 친10
성신 .....	28
성약 .....	14
성찬식 .....	26
성향 .....	14
세미나리 .....	10
순종 .....	22, 친6
신성한 본질 .....	2, 46
신약 성서 이야기 .....	친12, 친14
십일조 .....	22
예수 그리스도 .....	26
예언자 .....	34, 친6, 친8
우정 .....	10
평화 .....	28
행복 .....	2
회개 .....	2, 14, 26

### 청소년란 기사를 모집합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줄 청소년 여러분의 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사를 *리아호나* 청소년란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전자우편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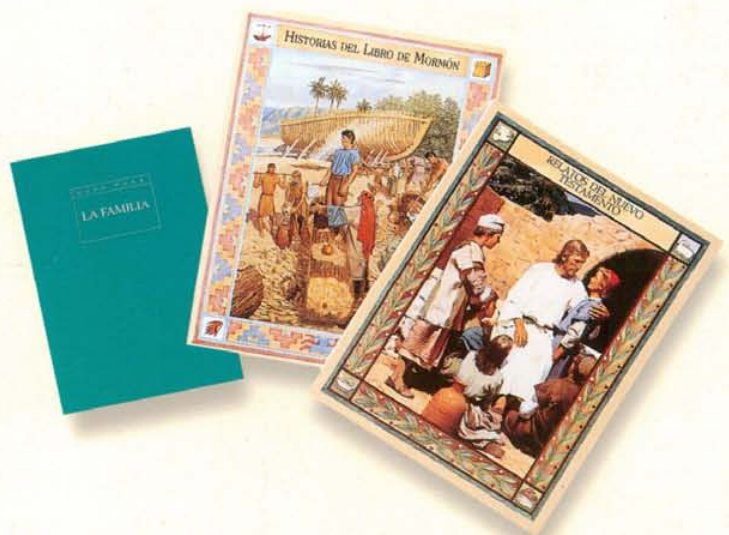
CUR-Liahona-IMag@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자신의 사진과 기사 속의 기타 중요 인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첫번째 책임입니다. 가정은 인생과 교회의 기초 교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되어”, 3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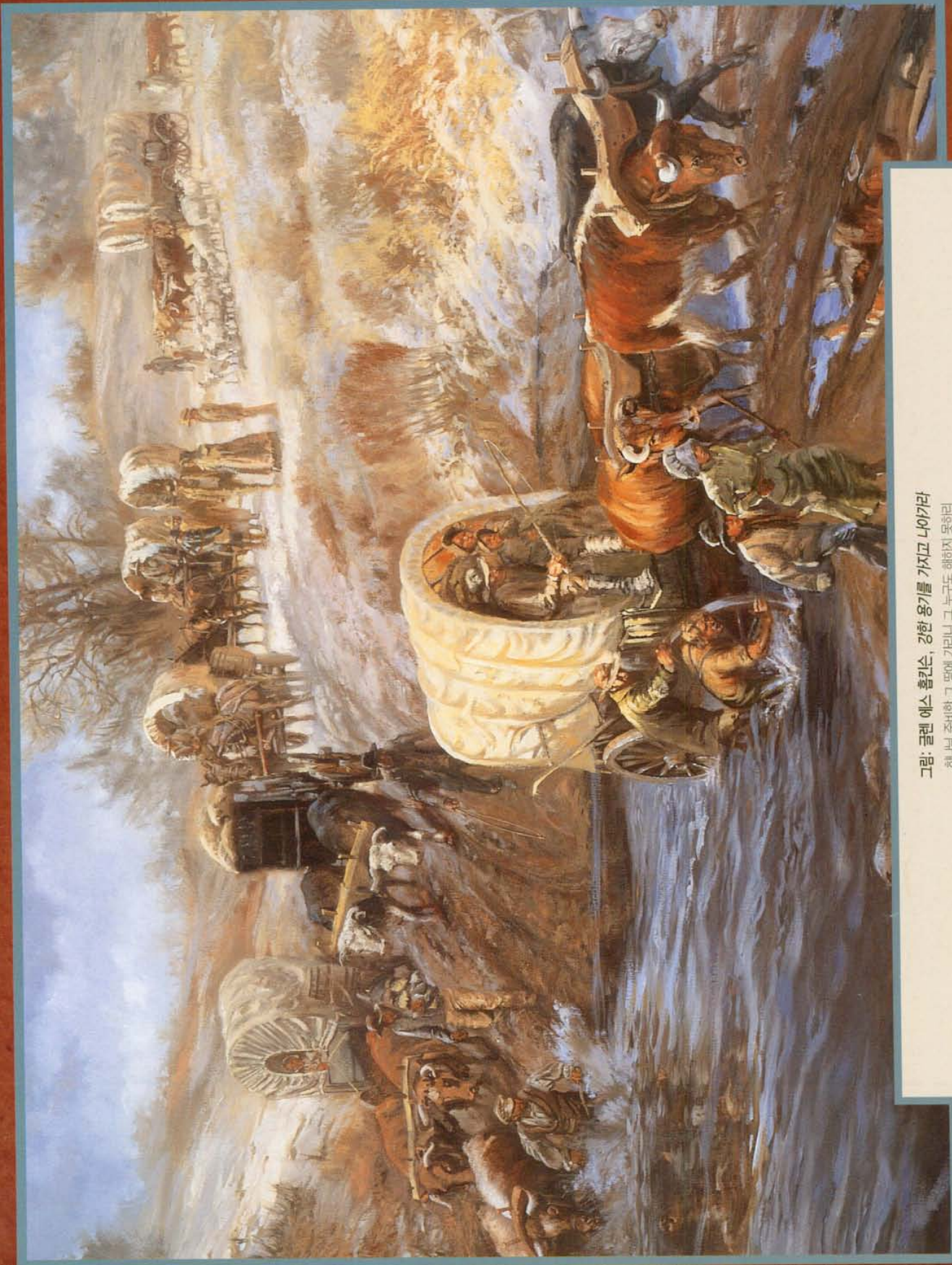


그림: 글렌 에스 홉킨스, 강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느님 준비한 그 땅에 가리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리  
성도를 복된 곳"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전승가 16장